

##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이 보고서는 2019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김 완 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박 윤 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팀장

유 영 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회계사

우리나라는 2012회계연도부터 IMF의 국제통계작성기준(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이하, PSDS)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포괄범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채가 산출되고 있다.

2018회계연도의 공공부문 부채(D3)는 1,078조원(GDP 대비 56.9%)으로, 일반정부 부채(D2)는 760조원(GDP 대비 40.1%)으로 OECD 국가 중 부채수준은 양호한 편이다.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16년 이후 감소세,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추세이다.

- **국가채무(D1)**: GFSM 1986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회계·기금의 현금주의 국가채무(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국가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주요 재무정보로 활용됨
- **일반정부 부채(D2)**: PSDS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로 국제기구(OECD) 제출 및 국제비교용으로 활용됨
- **공공부문 부채(D3)**: PSDS 기준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로 기존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목적으로 활용됨

# 1 부채의 종류

2018회계연도의 정부의 포괄범위에 따른 부채(총부채<sup>1)</sup>)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음

유형	2018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관리기준
국가채무 (D1)	681조원 (35.9%)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일반정부 부채 (D2)	760조원 (40.1%)	D1+비영리공공기관 (예보, 농어촌공사 등)	PSDS 발생주의	국제 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078조원 (56.9%)	D2+비금융공기업 (LH, 한전 등)	PSDS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1) 총부채(Gross Debt Liabilities)란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채무상품(Debt Instruments)은 채무자가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채권,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

우리나라의 부채종류별 총부채 금액의 7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D2는 2012회계연도 505조원에서 2018회계연도 760조원으로 증가(연평균 43조원, 7.1%↑)하였고, D3는 821조원에서 1,078조원으로 증가함(연평균 43조원, 4.7%↑). 특히, D2의 경우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재정위험관리가 요구됨

< 부채종류별 총부채의 7개년 추세 >

(단위: 조원)



## 2 D1 분석

2018회계연도의 D1은 681조원으로 전년대비 20조원(3.1%)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10.8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11.7조원)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20.3조원)에 주로 기인함. GDP 대비 비율은 35.9%로 2017회계연도 대비 소폭 감소함

☞ D1의 증가속도\*는 2018회계연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금융자산 대비 D1의 규모를 분석해본 결과 2012회계연도 81.9%에서 2017회계연도 96.1%로 점차 증대되어 부채상환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으나, 2018회계연도에 90.7%로 다소 회복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13년 47조(1.9%p) 증가, '14년 43조(1.5%p) 증가, '15년 58조(1.6%p) 증가, '16년 35조(0.3%p) 증가, '17년 33조(0.0%p) 증가, '18년 21조(△0.0%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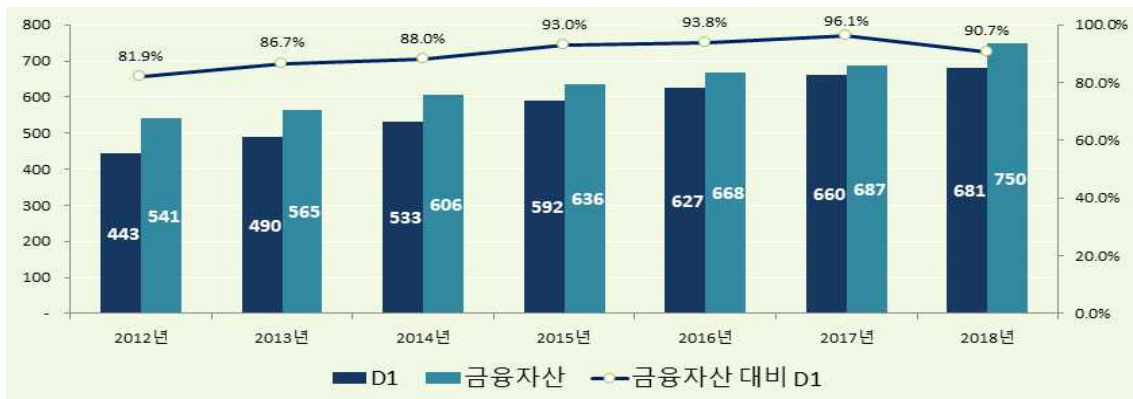
### < D1의 현황 및 추세 분석 >

(단위: 조원, GDP 대비 %)



### < 금융자산 대비 D1 추세 분석 >

(단위: 조원, %)



\* 금융자산은 PSDS 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을 합산하여 산출

\*\* 금융자산 대비 D1(%) = (D1 / 금융자산) X 100

### 3 D2 분석

#### 1 증감분석

2018회계연도의 D2는 760조원으로 전년대비 25조원(3.4%)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율은 40.1%로 2016회계연도 이후 감소 양상을 보임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683.4조원) 대비 28.0조원 증가(711.5조원)함. 일반회계 적자보전·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19.0조원), 공채 감소(△3.1조원)등 채무증권이 22.4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차입금이 3.9조원 증가하였음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63.9조원) 대비 4.0조원 감소(60.0조원)함.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감소(△0.2조원)하였으며, 교육자치단체의 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감소로 인해 부채가 감소(△4.3조원)하였음

중앙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전년(50.2조원)대비 0.8조원 감소(49.4조원)하였는데,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상환으로 인한 부채 감소(△1.5조원)및 자산관리공사의 배드뱅크채권 인수자금 조달, 기업정상화 지원 등 사업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0.3조원)등에 기인함

< D2의 현황 및 추세 분석 >

(단위: 조원, GDP대비%)



② 국제동향

D2는 국가 간 비교 시 주로 사용하는 지표이며,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부채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일반정부 총부채(D2)의 국제 비교 >

(단위: GDP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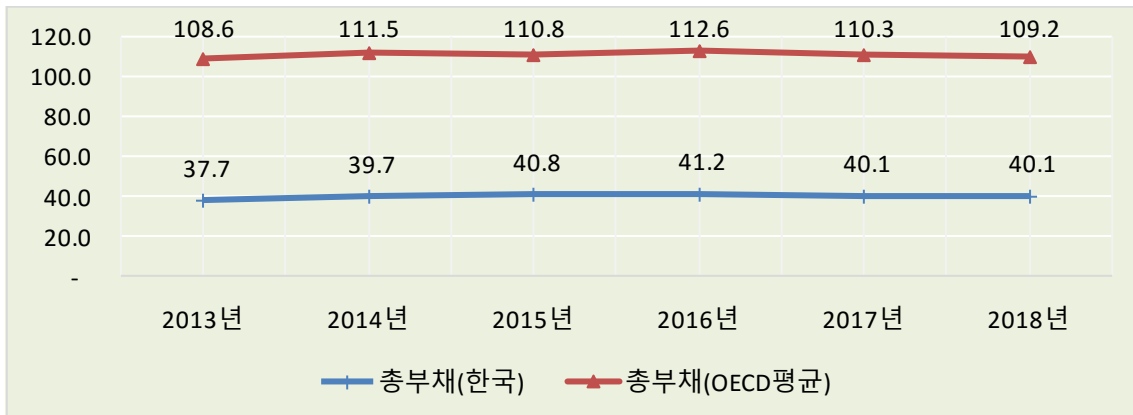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6 ('19.11),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GDP대비 총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2018년 우리나라 GDP대비 총부채는 '13년 37.7%에서 '18년 40.1%로 2.4%p 증가하였고, OECD평균은 '13년 108.6%에서 '18년 109.2%로 0.6%p 증가함

< 일반정부 GDP대비 총부채(D2)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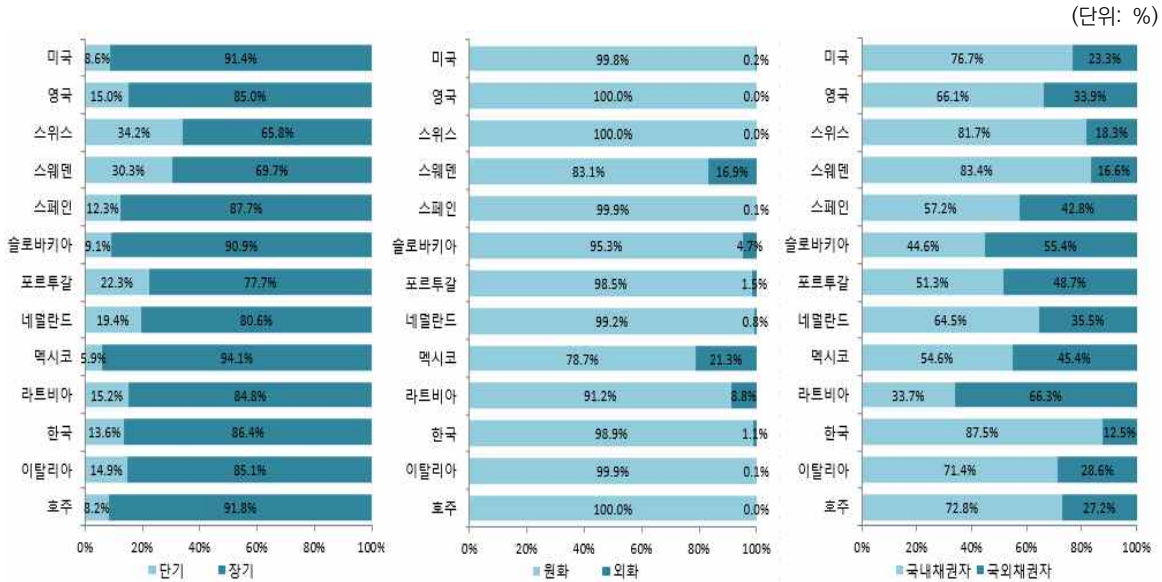
(단위: GDP대비%)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6 ('19.11),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한편, 부채유형에 대한 추가분석을 위해 OECD 국가의 D2를 만기별, 통화별, 채권자 거주지별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반정부부문 부채별(D2) 비교 >



(출처: OECD.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만기) 대부분 장기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장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94.1%임. 단기부채가 많으면,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므로 만기 도래 부채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함

(통화별) 대부분 원화(자국화폐)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외화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21.3%의 비중을 보임. 외화 부채가 많으면, 환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등 환위험 관리가 필요함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채권자가 보유하는 부채 비중이 더 높은 편이며, 국내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87.5%이며, 국외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로 66.3%임. 국외채권자 보유 부채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IMF, OECD 등 국가별재정분석보고서에서도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로 활용

## 4 D3 분석

### ① 증감분석

2018회계연도의 D3는 1,078조원으로 전년대비 33조원(3.2%) 증가함. D3에서는 비금융기업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비금융기업의 부채 증가 금액(한전 및 발전자회사 5.6조원, 가스공사 2.3조원 등)으로 인해 D2 증가분을 상회하여 D3의 증가폭은 확대됨

D3의 GDP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다 2015회계연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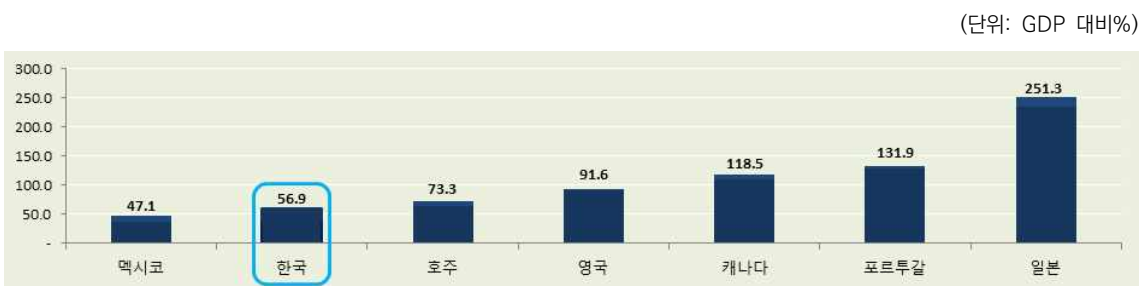
< D3의 현황 및 추세 분석 >



### ② 국제동향

한국의 D3는 OECD에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7개국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D3의 국제 비교 >



(출처: OECD.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